

협회소식

NEWS

본회, 최상백 회장 취임식 개최

본회는 5월 6일 12시에 대전신협 연수원에서 98년도 임직원 연수회 개최에 앞서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상백 회장 취임식을 거행한다.

이날 취임식에는 본회 역대 회장 및 지부장, 지역사회 양돈 원로, 농림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 연구소, 축산관련단체장, 학회, 연구회, 축협 조합장 및 양돈 조합장, 축산전문언론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신임 회장 선출 직후 곧바로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IMF한파로 인한 경비 절감과 양돈업계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임직원 연수회 개최에 맞춰서 거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1시에 열기로 한 98년도 임직원 연수회 입소식은 30분 늦춰서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다.

본회, 98년도 임원 지부장 연수회 개최

본회는 '98년도 임원 지부장 연수회를 5월 6일부터 7일까지 충남 대전 유성에 위치한 신협 연수원에서 갖는다. 협회 조직력 강화와 회원화합 분위기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참가비가 1인당 4만원이다. 연수회 참가 대상은 본회 임원, 지부(지회)장, 지부 회원 등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IMF 한파에 따른 양돈 업계의 대응책 마련 등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되며, 종래의 연수회 진행이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유스럽고 즐거운 연수회가 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연수회 기간동안 이관용 축산국장이 "정부의 양돈시책 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위기와 산업경영 전략" 등 교양강좌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우수지부 및 우수농장 사례와 사료자가배합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과 신임 지부장 소개 등 상호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 친목을 도모하는 등 알찬 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본회, 배합사료 가격 인하 요청

본회는 지난 4월 9일 회원사들로 하여금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여 줄 것을 한국사료협회에 요청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현재 양돈농가들은 돼지고기 수입개방과 외환위기로 인한 배합사료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의 폭등, 축산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 돼

지 가격 하락으로 양돈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들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 옥수수과 대두박 등 국제 곡물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배합사료 가격의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축협에서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평균 5.1% 인하한 바 있으므로, 사료업계도 IMF 한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축농가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배합사료 가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인하하여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육기준가, 서울 2개 도매시장 평균가로 잠정 합의

-본회, 농림부·육가공업체와의 협의회에서

본회는 지난 4월 9일 양돈협회 5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백 회장을 비롯하여 노영한 전무, 김동환 안양·시흥지부장(본회·감사), 윤상익 여주지부장, 오광철 서울지부장 등과 농림부 권우순씨 롯데, 제일제당, 한냉, 축협, 대상, 수출입 협회, 한국정보문화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매시장 지육가 기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반면 제일제당 등 육가공업체에서는 전국의 6개 도매시장 즉 축협 서울 공판장, 태강산업(서울), 태강산업(부산), 동원산업(부산), 신흥산업(대구), 삼호축산(광주)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의 편차가 적은 방향으로 지육가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생산자측과 육가공업체간의 의견이 대립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기준가를 찾기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서울 2개 도매시장 평균 지육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자는데 합의했다.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한

관계자는 "오후 4시가 되면 시세문의가 빗발치고 전국 평균 가격을 집계하는데 새벽 2~3시까지 기다릴 때가 많았다"며 신속한 집계를 위해서도 수도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 "돼지 도체등급판정 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외관 등급 "합격, 불합격"으로 단순화 요구

본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돼지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등지방 두께에 의한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외관 등급에 의한 판정에서도 외관 심사에서 A, B, C급은 1개급으로 통합하여서 외관 등급을 합격, 불합격 2개 등급으로만 판정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것은 외관 등급에 의한 판정이 도체등급의 판정등급을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등급판정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돼지 도체등급 판정 기준은 1차로 등지방 두께에 의한 판정을 실시하며 2차로 외관 등급에 의한 판정을 실시하여 등급판정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가 등지방 두께에 의한 판정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한 것은 A등급의 등지방 두께에 각 품종(L, Y, D, H종)의 등지방 평균치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표> 본회가 건의한 돼지도체등급판정 기준 개정안

등급	구분	도체중(kg)	등지방 두께		비 고
			현행(mm)	개정안(mm)	
A등급	박피	64~72	9~19	7~19	B, C등급도 A등급에 따라
		72~81	9~21	7~21	
	탕박	71~79	14~24	12~24	서 변경되어야 한다.
		79~89	14~26	12~26	

본회, 수의과학연구소에 돼지 질병과 설치 건의

본회는 정부 기구의 개편에 따라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동물검역소의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통합기구에 돼지 질병과를 설치하여 줄 것을 지난 4월 14일 수의과학연구소에 건의하였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국내의 돼지고기는 육류 소비량의 54%를 점유하는 우리나라 축산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날로 소비폭이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정부도 수출산업으로 육성 지원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등 수출 산업으로 부각(’97년도 수출실적 52천톤, \$2억5천만)하고 있지만, 양돈산업은 수입국의 까다로워지는 위생 조건과 소비자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돼지에 오는 각종 전염성 질병은 물론 소모성 질병의 근절이 무엇보다 현안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회는 “특히 이웃나라 대만에서의 구제역 피해는 이미 전세계의 주목거리가 되는 등 돈육 수출에서도 앞으로는 돈콜레라 청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TGE, PED 등 자돈의 설사병으로 인한 피해 등 돼지 질병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본회 및 전국 양돈농가의 숙원인 돼지질병 전담과를 새로 신설되는 통합기구에 설치하여 양돈농가와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여 줄것을 건의한 것이다.

본회, GSM-102자금 사용에 대한 건의

본회는 지난 4월 22일 GSM-102자금 사용에 대하여 이 자금이 사료원료 수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97년 12월 외화 부족으

로 인한 사료원료 구매난으로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있을 때 농림부에서 미국 농산물 수출신용자금을 제공 받도록 하여 축산업계의 위기에 대처한 바 있어 양축농가들도 사료원료(옥수수, 대두박 등) 구매에 계속 GSM-102자금을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난 4월 21일(화) 미국 정부의 4억불 추가지원이 결정되었는데 미국측은 육류 구입액 증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는 “최근 국내 축산업이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모든 축종에서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는 위기 상황으로 GSM-102자금을 육류 수입에 사용하는 것은 지난 해 GSM-102 자금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자본 이용을 위한 무분별한 육류수입을 유발시켜 그 간 이룩된 축산업이 하루 아침에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번에 지원되는 4억 불은 사료원료 수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최상백 회장, 양돈연수원 방문

본회 최상백 회장은 지난 4월 16일 경기도 이전에 소재한 도드람 양돈연수원을 방문하고 홍성택 연수원장으로부터 연수원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양돈농가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상백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진길부 도드람 양돈조합장, 김세현 이천양돈협의회장, 윤희진 대월종돈장 대표, 한백용 2000지지피종돈 대표 등 이 지역 양돈업계 인사들과도 만나 양돈업계의 현안 문제와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최상백 회장의 양돈연수원 방문은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양돈업계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회, 시세정보 자동응답전화 증설 및 번호변경 안내

본회는 현재 시세정보 자동응답전화를 2개 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1개 회선을 더 증설하였다.

변경전	변경후
553-3947	553-3747~8
563-9631	553-9631

도협의회, 지부 소식

경기도협, 이명복 회장 재선출



이명복 경기도협의회장

경기도협의회(회장 : 이명복)는 지난 4월 9일 11시 양돈회관 5층 회의실에서 도협의회를 열고 임기 만료된 도협의회장에 이명복 현 도협의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는 본회 최상백 회장과 이명복 경기도협의회장, 노영한 전 무, 경기도내 각 지부 지부장·임원 등이 참석하여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협의하고, 신임 최상백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축산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 정부에 대한 건의할 점 등을 토의하였다.

한편 이날 도협의회에서 최상백 회장은 이덕규 전 고양지부장, 강완구 전 포천지부장, 이종열 전 김포지부장에 대하여 재직 기념장을 수여하였다. 이명복 도협의회장은 박광수 전 안성지부장에게 돈육소비 촉진과 기자재 공동구입 등 지역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하

였다.

함양지부, 고속발효사료 제조·준공식 가져

함양지부(지부장 : 노익한)는 지난 4월 8일 오전 11시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438-1번지에서 고속발효사료 제조 준공식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고속발효사료는 농산 부산물인 비지, 쌀겨 등에 미생물을 투입하여 발효를 시켜서 사료를 만드는 방법이다.

함안지부, 창립 3주년 기념식 개최



함안지부(지부장 : 이길수)는 지난 3월 27일 함안 로타리 회관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설립 3주년 기념식을 갖고 회원간의 우의와 화합을 다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본회 최상백 회장을 비롯, 최영렬 경남도협의회장, 한영섭 부산·경남 양돈조합장, 박삼곤 김해지부장, 함안 축협조합장, 경남도 축정과장, 군 기초실장, 함안 농촌지도소장 등이 참석해 지부설립 3주년을 축하했다.

최상백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가배합사료 개발 등 생산비 절감에 노력을 기울여 양돈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상백 회장은

함안지부 설립에 공이 큰 김계웅 전 지부장에게 공로패 등을 수여했다.

김동환 안양·시흥 지부장(남양농장), 음식물 사료화 시설 준공



김동환 안양·시흥 지부장(원내)

남양농장은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읍암리 428-2번지에 제 3농장을 개장하고, 음식찌꺼기 액상사료화 시스템 준공 및 시연을 개최하였다.

서울시 강북구청이 주최하고, 남양농장이 협찬하여 준공한 음식찌꺼기 액상사료화 시스템은 음식찌꺼기를 1일당 5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각 분야에서 골치를 앓아온 음식쓰레기와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양돈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남양농장이 설치한 액상사료화 시스템을 보고자 업계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시설을 둘러보는 등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괴산지부, 지부장에 김원형씨 선출

괴산지부(지부장 : 김원형)는 지난 1월 17일 지



김 원 형 지부장

목원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임 우양규 지부장 후임에 김원형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김원형 지부장은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20번지에서 비육돈 전문농장인

안성지부, 지부장에 이광우씨 선출 및 사무실 이전



이 광 우 지부장

안성지부(지부장 : 이광우)는 지난 3월 20일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임 박광수 지부장 후임에 이광우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광우 지부장은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310-3번지에서 광일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지부 사무실을 안성시 석정리 278-15에서 안성시 당왕동 158-1번지로 이전 하였으며, 바뀐 전화와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안성시는 지난 4월 1일부로 시로 승격하였다.

☐전화 : 0334)675-3264

☐팩스 : 0334)676-5934

서울지부, 전화번호 변경

서울지부(지부장 : 오광철)의 전화번호가 (02)804-5060(팩스 겸용)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사무실은 기존의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68-10 4층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한다. **義豚**

